



전체 목록

아시아

뉴스

오피니언

포커스

영상

매체 소개

뉴스레터 신청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ASP, '일본'을 공부하다

11:30 AM Tuesday 4 June 2013



고선윤

백석예술대학 외국어학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동문들은 참 별나다. 학교 다닐 때는 그리도 공부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더니 이제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한단다.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ASP(Asia Study Program)', 이른바 동양사학과 최고위과정이다. 실은 공부도 AS를 받아야 한다고 'After Service Program'이라고 이해하는 동문이 더 많다.

동양사학과 총동문회

서울대 100여 학과 중 유일하게 동문회가 없던 동양사학과가 동문회를 조직한 것은 2009년 가을이다. 학과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600여 명의 선후배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일을 저질렀다. 모두가 다 반긴 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창회가 긍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매년 동창회보 <동사>를 만들어서 동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2년에 발간한 <동사> 4호는 350페이지 가량 된다고 하니 그 방대한 양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전공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 중국, 베트남, 터키, 이란 등 해외답사도 부지런히 했다. 각계각층의 선배들이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의 밤'을 가진 것도 여럿이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했다. 어느 집단에나 있는 산악회, 골프회 등도 활발하다. 그리고 ASP...

ASP, 동문들을 위한 특별 강좌

'학습형 동문회 건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작년 5월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동양사학과 출신의 강사진이 매월 첫째 주에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2년 5월에는 조영남(85학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국가발전 전략', 6월에는 한광수(74학번) 인천대 교수가 '미국을 사랑한 중국', 7월에는 김형중(78학번) 동양사학과 교수가 '마오쩌둥과 현대중국'을 강의했다. 방학을 보내고 9월에는 조영남 교수가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 중국공산당의 생존전략', 10월에는 지해범(79학번) 중국전문기자가 '특파원이 본 중국,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1월에는 배경한(74학번) 신라대 교수가 '장제스와 현대중국', 12월에는 구범진(87학번) 동양사학과 교수가 '만주주의 청나라가 어떻게 세계제국을 수립해갔는가'를 열강했다.



돌라의 아랍이야기

:당신이 궁금했던 '아랍'의 모든 것

아랍 청년 실업, '단기군복무'로 해결

최근 오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아랍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병역 복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빅(SABIC:Saudi Basic Industri ...



란코프 칼렘

:러시아, 호주, 팔랑 거쳐 한국에 온 '북한 전문가'

'제3의 한국' 예뻐, 쇠퇴하고 있다

잘 알고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2개의 '코리아' 즉 남한과 북한이 있다. 그리고 '제3의 한국'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다. 바로 중국 북부, 북한과 경계를 맞댄 엔볐조선족자치주다. 한국어를 ...



강성현의 중국이야기

:중국 사회와 역사, 인물에 대한 통찰

"마음이 맞으면 천 잔의 술도 부족해"

*중국 속담 속에 담긴 '중국인의 지혜와 처세, 그 달관의 예술' 酒逢知己千杯少, 话不投机半句多 (지우펑즈지 쉐 베이샤오, 화 뿌터우지 반취똘) "술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마시면 천 잔으로도 부족하고, 말은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새롭게 알아가는 일본

ASP, '일본'을 공부하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동문들은 참 별나다. 학교 다닐 때는 그리도 공부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더니 이제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한단다.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ASP(Asia Study Program)', 이른바 동양사학과 ...



김국현의 직필

:군사평론가의 예리한 대한민국 고찰

'점잖은' 정 총리가 화난 이유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정총원 총리가 질타하였다. 정 총리 같이 강직하고 점잖은 분이 이런 극단적 언사를 쓴 것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대변한다. 여기에 ...



박상설의 자연 속으로

:해안이 변독미는 캠핑호스트의 삶과 자연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세상은 상업주의 경쟁으로 늘 바쁘게 돌아가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명발달에 둘러 싸여 걸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은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기초는 걷기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



김명근의 마음산책

:마음 속으로 떠나는 여행

"출발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마음 속에 웅남하기 어려운 충동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이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리



일본을 공부하다

2013년 ASP 주제는 '일본의 어제와 오늘'이다. 지난 4월 박훈(84학번) 동양사학과 교수가 '메이지 유신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강의했다. 메이지 유신의 이유를 18세기 말 러시아 쇼크 등으로 알 수 있는 과장된 위기감과 서양문물의 신속한 수입에서 찾았다. 또 하나 19세기 일본은 주자학의 전성 시대라고 정의하고 유교적 정치문화의 확산과 활용이 변혁촉발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5월에는 원지연(84학번) 전남대 교수가 '근대 일본에서 전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강의를 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대외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정치문제로서의 역사인식'까지 민감한 부분을 다루었다. 최근 아베 수상이 언급한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2013.4.23)"는 말 속에서 일본의 전쟁 인식 문제에 접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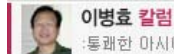
늦은 시간임에도 항상 50~60명의 동문들이 관악 구석진 곳까지 찾아왔다. 엄격하셨던 교수님의 눈을 피해 강 건너 술집을 찾았던 선배도, F학점 하나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친구도 모두 한자리에서 열심히 수강했다. AS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새로운 인물들도 보였다.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동문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모양이다. 이렇게 동문만이 아니라 동문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오는 6월 5일에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를 모시고 '일본 전후 정치의 전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ASP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비동양사학과 출신 강사를 초빙했다. 장소 역시 서울대를 벗어나 충정로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옮겼다. 더 많은 동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한 모양이다.

2학기에는 '천황을 통해서 본 일본', '무사를 통해서 본 일본', '영웅 3인을 통해서 본 일본', '신도를

학에서 방어기제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들이지요. 그 중에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나는 할 ...



이병호 칼럼
:통쾌한 아시아 정치 진단

만달레이 가는 길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는 고상한 모습과 품격 있는 행동거지 때문에 'The Lady'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올해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나라를 '미얀마' 대신 옛날 국명 '버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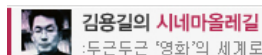
김영수의 경제토크
: '아 그렇구나' 재미있게 물어보는 경제이야기

CJ, 해도 너무들 했다

CJ 총수 남매. 나도 개인적으로 좀 안다. 재벌가 사람들 중에선 그나마 인간적이고 겸손하고 그래도 이야기가 통하고 사회정의도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은 바 있다. 동년배들 사이에 ...

TopN - 오늘의 아시아

유엔 사무총장 '미스터 뱅' 아닌 '미스터 반'



김경일의 시네마레길
:두근두근 '영화'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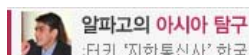
"외로운 그대, 그녀에게 말해요"



아시라프 달리 연재소설
:사마위스로 가는 길

"네 생각대로 해"

*<사마위스로 가는 길> 열여섯 번째 이야기 27 와치호 이삼 알 딘 장군은 비올라 여사의 초대나 부름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그는 10시부터 옷을 갖추어 입고 그녀가 말했던 그와 그녀, 나르시스 ...



알파고의 아시아 탐구
: '터키' '지한통신사' 한국특파원의 요술램프

결혼의 자격

한국 생활이 거의 9년째로 접어들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같은 밥상에서 김치도 먹고, 같은 병으로 물도

통해서 본 일본'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단다. 아스쿠니 참배, 위안부에 대한 망언 등 한 일관계는 매끄럽지 않지만 일본을 알고자 하는 작은 만남이 동양사학과 동문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관련기사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마사코 빈, 네덜란드 가다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봄날씨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북한 움직임에 민감한 일본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일본고전독회편 세 권의 책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각자내기...못다한 이야기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각자내기'
-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합격자 발표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

좋아요

2명이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하기](#)

비회원 작성

이름 *

Email *

입력완료



댓글 입력...

[다음 방법을 이용해 댓글 달기](#)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좋아요



<http://kor.theasian.asia/archives/81060>

[Junior AJA] 두 몽골 미녀의 인생을 바꾼 미인대회
kor.theasian.asia

* 아시아지자체협회(AJA)와 아시아엔은 한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Junior AJA'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들 회원 가운데 몽골 출신의 우양가 아마르멘드(Uya ...

5월22일 18:29

もっと見る

349명이 THEAsianN을(를) 좋아합니다.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마셔왔다. 9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했다면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을 ...



이종수 칼럼

대한민국의 '공정사회' 짚어보기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류사회의 역사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s)의 쟁취를 둘러싸고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다툼이 끊임없이 전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취급방침](#) | [Contact Us](#)

제호 : THEAsianN / 등록정보 : 서울특별시 아01771 / 등록일 : 2011년 9월 6일 / 발행인 : 이상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3-90 화수회관 207호 / 대표전화 : 02-712-4111 / 팩스 : 02-718-1114 / 이메일 : webmaster@theasian.asia

COPYRIGHT AJA Media & Culture Corporation

